

한국 고대 羅織물의 유형과 특성

-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타난 羅織물을 중심으로 -

권영숙·신경철*·장현주**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동명정보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기간제)**

Type and Characteristics of Gauze Fabric of Ancient Korea

- Focused on Gauze Fabrics Shown on Costume Restraint of the King Hungduk -

Young-Suk Kwon · Kyung-Cheol Shin* · Hyun-Joo Jang**

Professor, Dept. of Clothing&Textiles, Pusan National Univ.

Professor, Dept. of Archaeology, Pusan National Univ.*

Pull-time Lecturer of Dept. of Fashion Design, Dong Myoung Information Univ.**

(2000. 8. 21 투고)

ABSTRACT

Gauze is very light and thin. Their warps are entangled and their structure is loose. It is natural that they are easier to decay than other silk fabrics through physiochemical process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Nonetheless quite many remains of Gauze fabrics can be found in China or Japan as well as in Korea.

Various Gauze was used in costumes since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ir weaving techniques, such as using gold threads with silk-fabrics, was developed in Koryo dynasty era, which made it possible to create more magnificent gauze fabrics in Korea. Relatively a lot of Gauze fabrics are remained in Korea. Based on these corroborative relics, this thesis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gauze fabrics possessed in Korea and categorizes the gauze fabrics described in the Decrees on Costume Restraint of the King Hungduk. This also compares them with the present gauze in other countries.

The types of gauze fabrics are generally divided into desined gauze, and non-designed gauze, the one without pattern. There are a lot of desined gauze, such as dyeing gauze, brocade gauze, embroidery with gauze ground, patterned gauze with gauze ground etc. which were found in Korea and also in China and Japan.

Non-designed gauze is divided into 2-end complex gauze, 3-end complex gauze, 4-end complex gauze, etc depending on the number of crossing warps. All of the non-designed gauze of Koryo dynasty found in Korea was 4-end complex gauze fabrics. These non-designed gauze fabrics were also found in Japan and China.

※ 본 연구는 '98 한국과학재단 국제공동연구비지원에 의함(과제번호:986-0300-003-2)

Key Words : Gauze(羅), desined gauze(紋羅), Non-designed gauze(無紋羅)
2, 3, 4-end complex gauze(2, 3, 4經絞羅)

I. 서론

우리나라는 상대부터 이미 양잠에 적합한 기후풍토와 견직물 산업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 등으로 각 시대마다 많은 종류의 견직물을 제직하였다. 絹, 紬, 綃, 綾, 緞, 紗, 羅, 錦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견직물이 그 용도와 신분에 맞게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견직물 특유의 얇고 가볍고 부드러운 재질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의류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羅織물이다.

그리고 흥덕왕 복식 금제는 통일신라 제 42대 흥덕왕 9년(814)에 사치를 금지하고 신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22항목의 복식류에 대해서 금지령을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평인의 5단계를 남녀별로 다시 구분하여 그 재료의 직물, 문양, 장식, 색채, 승수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제하였다. 이미 흥덕왕 복식금제령에 대하여 김동욱¹⁾, 유희경²⁾, 정구복³⁾ 등에 의해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은 대개 의복과 함께 복식의 재료를 다룬 내용으로 직물 중 견직물 그 중에서도 羅織물에 대한 설명은 일부이다.

그러므로 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대 羅織물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첫단계로 흥덕왕 복식금제령에 특히 다양하게 세분화된 명칭으로 나타나는 羅織물의 유형을 제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것을 국내 현존하는 유물 및 중국, 일본의 국외 문헌에 보이는 고대 羅織물의 유형 및 특성과 비교하고자 한다.

II. 羅織물의 정의

羅는 경사가 끝에서 순서대로 얇혀서 조직된 직물로서 가볍고 얇고 성근 투공 견직물로서 고급 의류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복식에 다양한 羅織물이 사용되었으며⁴⁾ 고려시대에는 견직물에 金絲를 함께 사용하는 등 특히 그 제직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더욱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인 羅織물의 제직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시대의 문헌기록을 보면 관청 및 민간에 의해서도 직조가 이루어졌으며⁵⁾ 紗羅綾緞의 이름으로 항상 제직 및 교역, 사치 및 수입금지 등의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일정한 신분 이상의 계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견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羅織물은 서로 얇혀 조직된 단위경사의 가닥수에 따라 2經, 3經, 4經絞羅 조직으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2, 3, 4經絞羅조직 모두 羅로 분류하지만 일본에서는 2經絞羅는 紗, 3, 4經絞羅는 羅로 분류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經絞羅직물을 紗직물에 포함시키기도 하고⁶⁾ 羅직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⁷⁾. 2經絞羅직물을 羅로 분류하는 경우는 넓은 의미의 羅織물 즉 絞經직물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을 紗로 분류하는 경우는 고대에 紗가 평직과 사직으로 혼용되어 왔으므로 사직 즉 2經絞羅직물을 紗라고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의 絞經조직 즉 단위경사 가닥수에 관계없이 경사가 서로 꼬인 조직의 직물 즉 넓은 의미의 羅織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羅織물은 매우 가볍고 얇으며 조직이 성글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물리·화학적인 열화과정을 거치면 다른 종류의 견직물보다도 훨씬 빨리 부식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비교적 많은 羅織물의 유물을 접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羅織물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질감으로 인해 비교적 많은 공을 들여서 귀족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류로서 상당히 많은 양이 제직되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리고 2經絞조직은 3經, 4經조직보다 훨씬 제직이 간편하여 많은 양을 제직하기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고대 유물 중에는 2經絞羅보다는 3, 4經絞羅가 훨씬 많다. 그 이유로서 먼저 紗는 평직을 제직할 때와는 분명

히 다르게 더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관상으로 얼핏보아 평직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羅織물의 제작방법은 다른 직물들에 비해 훨씬 까다롭지만 귀족계급의 우아한 복식미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로서 상층계급의 복식미를 화려하게 장식한 직물이다. 2차표면 장식기법으로 정교하고 화려하게 제작하였음을 흥덕왕의 복식급제 기록이나 국내 불복장 유물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국내 소장되어 있는 羅織물의 소장처와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III. 羅織물의 유형과 특성

고대 한국 羅織물의 유형을 기본 조직, 문양의 유무, 섬세도(소재), 기타 생산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국내외 문헌자료 및 현존유물을 중심으로 고대 羅織물의 유형을 분류하고 문헌 및 현존유물에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⁸⁾

1. 기본 조직에 따른 분류

한 단위의 경사 가닥수에 따라 2經, 3經, 4經絞羅로 구분한다. 국내에서는 4經絞羅조직의 無紋羅 직물이 비교적 많이 발견되고 있다.

1) 2經絞羅

2가닥의 경사가 한조가 되어 제작된 것으로 외관이 紗와 같으므로 중국에서는 暗花紗라고 부르기도

<표 2> 한국 고대 羅織물의 유형 분류

1. 기본조직에 따른 분류

- 2經絞羅
- 3經絞羅
- 4經絞羅

2. 무늬의 有無에 따른 분류

- 紋羅
 - 表紋羅
 - 자수형: 繡羅
 - 침도직형: 刺羅, 刺繡羅, 刺繡錦羅
 - 인염형: 金箔紋羅, 纈紋羅
 - 중조직형: 織金羅
 - 地紋羅 — 문양유형: 野草羅, ○○紋羅
- 無紋羅

3. 섬세도(소재)에 따른 분류

- 昇天羅(매우 고운 羅)
- 總羅(비교적 고운 羅)
- 布紡羅(비교적 거친 羅)

4. 기타 지역명칭에 따른 분류

- 越羅

하였다⁹⁾. 현재 일본에서는 2經絞羅 직물을 紗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대부분의 羅織물은 2經絞羅 직물만 남게 되었으며 또 이들은 현재 紗로 분류된다. 즉 향타직물외에는 대부분 ○○紗라고 불리고 있다.

2) 4經絞羅

4가닥의 경사가 한조가 되어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제작된 것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직물은 고려시대까지 유물에서 비교적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이중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유물인 석가탑 유물

<표 1> 국내 현존하는 羅織물

유물명	추정연대	소장처	특성
석가탑 유물	8~10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無紋羅 6점 · 4經絞羅
월정사 유물	10세기	월정사	· 繡羅 1점 · 香盒囊의 소재
수덕사 유물	14세기	수덕사	· 無紋羅 1점, 紋羅 3점 · 3, 4經絞羅
아미타불복장 유물	14세기	온양민속박물관	· 2, 3, 4經絞羅 40점 · 紋羅(金箔羅 등), 無紋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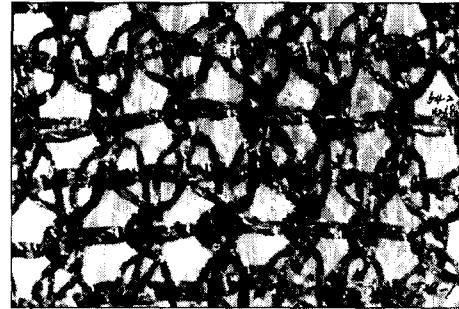
<표 3> 문헌 및 유물을 토하여 본 羅織물의 유형

유형		문헌	한국유물	중국유물	일본유물	
기본조직	2經絞羅		◎	◎	◎	
	3經絞羅		◎	◎	◎	
	4經絞羅		◎	◎	◎	
무늬 有無	表紋羅	繡羅	◎	◎	◎	
		麤羅	◎	○		
		麤繡羅	◎	○		
		麤繡錦羅	◎	○		
		金箔紋羅		◎	◎	◎
		細紋羅		◎	◎	◎
	地紋羅	織金羅		◎	◎	◎
		野草羅	◎	◎	◎	◎
섬세도 (소재)	昇天羅	◎	○			
	總羅	◎	○			
	布紡羅	◎	○			
지역명칭	越羅	◎	○	◎		

◎ : 유물 및 문헌에서 실제로 확인된 羅織물 ○ : 문헌상의 기록 등으로 보아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羅織물

에 4經絞羅 직물이 수점 있으며(사진 1~2), 그의 고려시대 아미타불 유물, 수덕사 소장 유물 중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無紋羅 직물이라고 하지만 羅 특유의 일정한 투공이 마치 멀리서 바라보면 무늬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석가탑 유물과 수덕사에 소장된 유물의 밀도는 거의 유사한 범위로서 1inch간 경사가 각각 132, 160로서 4經絞羅이므로 각각 30~40개의 교경단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매우 극세직의 羅織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入子菱格子文焦茶羅唐花模樣褐縠裂은 曲1寸간(약 3cm)에 경사



(사진 2) 4經絞羅 조직-석가탑유물

180. 위사 50으로 제작되어 있다.¹⁰⁾ 이와 같이 羅는 매우 극세직으로 제작한 직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는 국내 현존하는 4經絞羅조직의 특성이다.

2. 무늬의 有無에 따른 분류(紋羅織물)

羅織물은 크게 무늬가 있는 紋羅織물과 무늬가 없는 無紋羅織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들은 제작기법상 매우 복잡한 문양을 표현할 수가 없고 대부분 菱形, 小花紋 등의 작은 문양이 많다. 그러므로 더욱 화려하고 큰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염색,



(사진 1) 4經絞羅-석가탑유물

<표 4> 국내 현존하는 4經絞羅

소장지	추정연대	유물수	밑도
석가탑유물 (국립중앙박물관)	8~10세기 (통일신라)	6점	112~162.6×36~48.3/inch (평균:132.1×41.5/inch)
아미타불 유물 (온양민속박물관소장)	14세기 (고려)	13점	28~80×6~25/inch (평균:50.2×14.8/inch)
수덕사 소장	14세기 (고려)	2점	152~168×26~40/inch (평균:160×33/inch)

금박, 직금, 자수 등의 2차가공을 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¹¹⁾

絞羅는 羅織物 중에서 무늬가 있는 것으로서 직조에 의해 바탕과 무늬조직을 달리하여 문양을 표현하였거나 제작한 후 인염 등의 후처리에 의해 표면에 문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다시 겉으로 문양이 도드라져 보이는 表紋羅織物과 문양이 있으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지문법에 의해 문양이 표현된 地紋羅織物로 구별할 수 있다. 無紋羅織物은 위의 기본 조직에 따른 분류에서 언급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먼저 表紋羅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表紋羅

絞羅의 유형 중에서 문양이 겉으로 확실히 도드라져 보이도록 하기 위해 바탕을 제작한 후 자수 및 염색 등의 방법을 통해서 문양을 뚜렷하게 표현한 직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크게 자수, 침모직, 염색, 증조직 등을 이용한 문양표현 방법이 있다.

(1) 자수형

① 繡羅

羅織物은 향낭, 장갑, 장막을 만드는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자수의 밑바탕천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¹²⁾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의 그물과 같이 구멍이 뚫린 투공직물인 羅는 자수의 바탕천으로서 적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繡羅織物은 羅織物을 제작한 후 자수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다시 표현한 것이며 흥덕왕 복식금제조에서 6두품 여자 半臂에 금한 기록¹³⁾ 외에도 국내, 국외에서 다수의 유물을 찾을 수 있다.

14세기 고려시대의 유물에 해당하는 아미타불 복

장직물 가운데 2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탕이 2, 3經絞羅 조직이며 문양은 바탕조직의 실과 다른 색의 실을 사용하여 원형모양으로 자수처리한 직물이다 (사진 3-4). 경사에는 흑색의 실, 위사에는 흰색의 실을 사용하여 2經絞羅織物로 제작한 후 다시 둥근 원형의 무늬를 나타내기 위해 마치 수를 놓듯이 문양을 표현한 직물로 흥덕왕 복식금제령에 보이는 繡羅織物이 이와 같은 직물이라 생각된다. 수를 놓기 위해 사용된 실은 바탕 경사와 위사보다 3~5배 굵은 것이 특징이다.



(사진 3) 繡羅조직-온양민속박물관소장



(사진 4) 繡羅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이외에도 1970년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을 해체할 때 발견된 香盒囊의 소재가 繡羅직물이며 이것은 한국 最古의 자수유품으로 또한 그 의의가 있다(사진 5). 4經紋羅이며 경·위사의 밀도는 165×43/inch이며 위사의 굵기가 경사에 비해 매우 굵어서 마치 레이스와 같은 질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문양은 정확하게는 알수가 없으나 불교의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연화화생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의 문양으로 볼 수 있다.¹⁴⁾



(사진 5) 繡羅 香盒囊 - 월정사 소장

그리고 중국 新疆의 출토유물 중에서도 繡羅직물을 비교적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¹⁵⁾(사진 6)은 중국 전국시대 江陵馬山一號楚墓出土品으로서 龍鳳虎紋繡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 역시 羅바탕에 용, 봉황, 호랑이 문양 등을 자수놓은 것으로 楚代 자수의 精品이라 할 정도로 정교한 것이다. 그리고 長沙馬王堆 西漢墓에서는 진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繡羅香囊이 출토되기도 하였다.¹⁶⁾



(사진 6) 龍鳳虎紋繡(中國戰國)
中國歷代織染繡圖錄 p.43

(2) 침모직형

① 罽羅

일반적으로 罽는 부드러운 털로 제직되며 직물 끝이 서 있는 과일 모직물로서 매우 정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 자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閼靺鞨 모자의 소재는 침모직으로 제직한 silk velvet 직물이며 흑색의 天鵝絨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⁷⁾ 그리고 석주선 기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天安出土 豊山洪氏 17世孫(1761~1841년)의 출토품 중 棺衣의 소재가 絨背錦으로 되어 있는데¹⁸⁾ 이 직물 역시 과일직처럼 직물끝이 서 있으며 silk이었다. 그러므로 罽羅직물 역시 그 소재가 silk로서 羅바탕에 일정한 문양을 표현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침모직으로 제직한 직물로 유추할 수 있다.

홍덕왕 복식금제조에서 罽羅는 5·6두품 여자의 褙襟, 6두품 여자의 履, 襪袴 등에 금지한 기록이 있다.¹⁹⁾

② 罽繡羅

繡羅에 일정한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침모직의 제직기법을 사용한 직물로 추정된다. 진골여자계급의 表衣, 6두품 여자의 半臂에 금지한 기록이 있다.²⁰⁾

③ 罽繡錦羅

罽繡羅에 금사를 넣어 제직한 것으로 침모직 및 증조직의 기법이 함께 사용된 表紋羅직물로 볼 수 있다. 이 罽繡錦羅직물은 5·6두품, 진골대등의 表衣, 袴, 內裳, 表裳, 褙襟, 褙 등에 금한 기록²¹⁾이 있으므로 성골계급의 表衣에만 허용된 고급직물임을 알 수 있다.

(3) 인염형

① 金箔紋羅

羅조직으로 제직한 후 금박을 찍어 문양을 나타낸 것으로 국내에서도 비교적 많은 유물을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아미타불 복장직물 중에 2점의 금박 문라직물이 있는데 이것의 바탕은 4經紋羅조직이며 금박으로 나타낸 문양은 봉황문, 여의문, 당초문, 기하문 등 다양하다.²²⁾

(사진 7~8)은 운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 아미타불 복장직물로서 4經紋羅조직으로 제직한 후 그 위에 금박으로 문양을 찍어 적색바탕에 금색의 기하문의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매우 화

려하다. 이와 같이 羅織물은 그 제직 자체가 매우 복잡하므로 직물을 제직하면서 다양한 문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직후 그 위에 다시 2차적인 가공법을 사용해서 문양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 7) 금박문라-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8) 금박문라 조직-온양민속박물관소장

중국에서는 殷代말기 즉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전에 이미 금은박 가공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공예품 등에 그 기법이 사용되었으며²³⁾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삼국시대부터 금박 등이 사용되어 왔다.²⁴⁾ 그리고 일찌기 기원 초에 인도지역에서도 금이 풍부하여 많은 금사직물을 제직하고 또 이것을 수출하였다. 특히 인도의 특산직물인 사라사에 다시 금박을 한 금사라사 직물은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많이 제직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복의 일정한 부위에만 금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사라사 전체에 織紋과 같이 금박을 하여 더욱 화려하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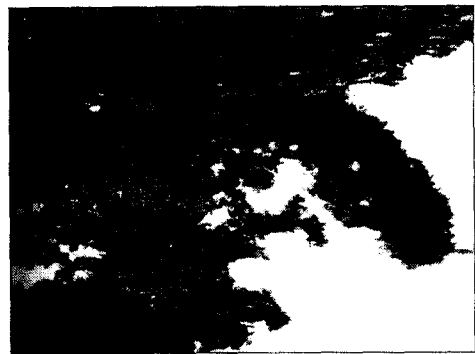
② 縵紋羅

羅織물을 제직한 후 疋염법을 사용해서 문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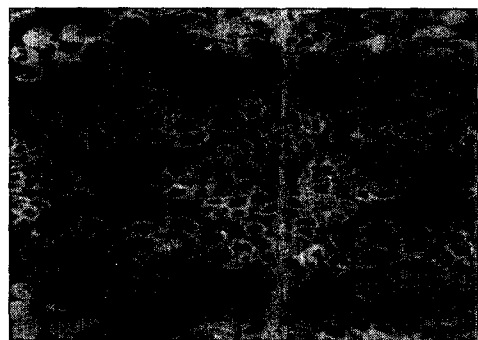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疋염은 방염의 기법에 따라 교염, 협염, 납염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²⁶⁾ 중국에서는 南北朝時代와 隨, 唐代에 이르러 羅織물 및 얇은 견직물에 疋염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발달했으며 대개 6~9세기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²⁷⁾ 그리고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羅織물의 문양에도 협염의 기법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金箔紋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羅織물은 제직시 복잡한 문양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므로 제직후 다양한 염색기법 등을 사용해서 크고 화려한 문양을 표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9~10)은 일본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는 紋羅織물로서 모두 羅바탕에 협염염법으로 다시 문양을 표현한 것이다. 대부분 협염염법은 얇은 紗, 羅織물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옷감을 몇번씩 접어서 판 사이에 끼워도 염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9) 白地蓮花紋夾縵羅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p.14)



(사진 10) 茶地鹿花卉円紋夾縵羅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p.14)

(4) 중조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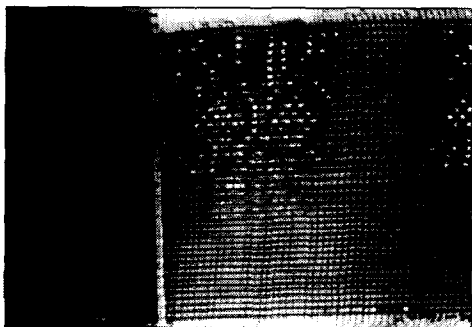
① 織金羅·錦羅

羅직물을 제작한 후 위사와 위사 사이에 금사를 넣어 특정한 문양을 나타낸 brocade 직물로서 일종의 중조직 직물이다. 織金직물에 사용되는 금사는 대개 撚金絲와 片金絲의 2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²⁸⁾ 초기에는 片金絲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金絲 제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撚金絲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織金의 한 유형인 織金羅 직물은 北宋末期에 발달했다. 『藝林伐山』에 의하면 宋 徽宗의 궁인이 麝香色金羅로 된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南宋 楊萬里的 시에는 “金織羅”라는 시구가 보이며 궁인이나 귀부인들이 즐겨 착용하였던 하절기의 의장으로 사용되었다.²⁹⁾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織金 기법이 크게 발달한 고려시대 유물에서 織金羅 직물을 다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시기 국내 소장되어 있는 織金羅 유물에 사용된 금사는 대부분 片金絲이었다.

고려시대의 유물로서 수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직물은 적색계통으로 바탕조직이 2經絞羅, 무늬조직은 평직과 능직이며 여기에 片金絲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織金羅 직물은 경·위사밀도가 72~80×36~46/inch (평균:76×41/inch)로 나타났다(사진 11~12).

그리고 (사진 13)은 수덕사에 소장되어 있는 織金羅 직물이며 이 유물은 직물 전체에 문양을 나타내려고 금사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가장자리 식서부분에만 片金絲를 끼워 넣은 직물이다.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분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금분이 부착되어 있던 종이(가죽)의 표면만 이 남아



(사진 11) 織金羅-수덕사 소장



(사진 12) 織金羅 조직-수덕사소장



(사진 13) 織金羅 조직-수덕사소장

있는 상태이다. 바탕을 이루는 위사보다 片金絲의 굵기가 조금 더 굵은 것도 알 수 있으며 바탕은 2經絞羅조직 즉 오늘날의 사직으로 제작되어 있다.

2) 地紋羅

바탕과 무늬부분을 같은 실로 제작하되, 바탕조직과 무늬조직의 제작방법을 달리해서 문양을 제작한 羅직물을 말한다. 위의 表紋羅가 비교적 화려하고 문양이 걸로 드러나 보이는데 비해 이렇게 제작된 羅직물은 문양이 은은하고 고상한 느낌이 든다.

(1) 문양유형

① 野草羅

野草羅는 문양에 따른 명칭일 가능성이 크다. 즉 야생의 풀무늬 즉 당초문양과 같은 형태의 무늬가 있는 羅직물로 유추된다. 고려시대 아미타불 복장 직물 유물중 小花紋羅, 菊唐草紋羅, 唐草風草花紋羅 직물이 있는데³⁰⁾ 이와 같이 野草는 당초문양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된다(사진 14~15).

(사진 14)는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唐

草風草花紋羅織物이며 (사진 15)는 이 직물의 문양을 도식화로 그린 것이다. 이런 유형의 문양이 흥덕왕 복식금제령에 나오는 野草羅 직물의 문양과 같은 것으로 유추된다. 흥덕왕 복식금제령에서 비교적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4·5·6두품 여자의 內裳, 表裳, 內衣, 半臂, 褙褙, 襪, 腰帶 등에 금제한 기록이 있다.³¹⁾



(사진 14) 野草羅-온양민속박물관소장



(사진 15) 野草羅 문양의 도식화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p.302(재인용)

② ○○紋羅

위에서 설명한 紋羅織物 외에 각종 다양한 문양이 있는 紋羅織物이 여기에 속한다. 현존하는 국내 유물로서는 온양민속박물관 및 수덕사 등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개 바탕이 2, 3, 4經紋羅織物이며 무늬는 평직 또는 바탕조직의 변형에 의해

서 작은 화문, 초화문, 운문, 용문, 수파문 등이 표현되었다. ○○紋羅織物의 특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3. 섬세도(소재)에 따른 분류

① 昇天羅

昇天이라는 뜻에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羅 중에서 특히 얇고 섬세한 것으로 매우 가벼워 날을 듯한 羅織物로서 無紋羅일 가능성이며 또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문양 즉 昇天女, 구름, 용 등의 문양이 있는 紋羅織物일 가능성이 있다. 이 昇天羅 직물은 4두품 여자의 腰帶에 금한 기록이 있다.³³⁾

② 總羅

總의 사전적인 의미는 울이 가늘고 성기게 짠 마포이다³⁴⁾. 그러므로 가늘고 성긴 조직의 疎羅織物로서 그 소재가 견이 아니라 마직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이 總羅織物은 5·6두품 여자계급의 半臂, 襪, 袴, 表裳 등에 금한 기록³⁵⁾이 있다.

③ 布紡羅

여러 빛깔의 실을 교대로 층이지게 짜서 만든 색동비단으로 추정하기도 했다.³⁶⁾ 그러나 아직 확실한 문헌적 근원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布 즉 麻를 방직하여 羅조직으로 제직한 것으로 總羅織物보다는 좀 더 성근 것이라 생각된다.

신라시대 천마총에서 출토된 누비 鞍褥의 소재가 布紡羅로 보고되어 있으며³⁷⁾ 흥덕왕 복식금제령에는 5·6두품 여자의 褙褙에 금한 기록이 있다.³⁸⁾

<표 5> 국내 현존하는 ○○紋羅 織物³²⁾

소장지	추정연대	유물수	조직	밑도
아미타불 복장직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14세기 (고려)	25점	바탕 : 2·3經紋羅 무늬 : 평직	36~48×17~31/inch (평균:41.2×24/inch)
수덕사 소장직물	14세기 (고려)	2점	바탕 : 2·4經紋羅 무늬 : 3·4經紋羅	60~224×48~54/inch (평균:142×51/inch)

4. 기타 지역명칭에 따른 분류

① 越 羅

越羅는 중국의 越지방에서 생산되는 일종의 羅직물로서 그 재질이 가볍고 얇으며 대개 부녀자들의 의류로 많이 사용되었다.³⁹⁾

IV. 결 언

1.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복식에 다양한 羅직물이 사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견직물에 금사를 함께 사용하는 등 특히 그 제작기법이 발달하여 더욱 화려한 羅직물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흥덕왕 복식령에는 繡羅, 闕繡羅, 闕繡錦羅, 總羅, 布紡羅 등의 다양한 羅직물이 금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紗羅綾緞의 이름으로 항상 제작 및 교역, 사치 및 수입금지 등의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신분 이상의 계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고급 견직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羅직물은 경사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조직되어 있으며 매우 가볍고 얇으며 조직이 성근 투공 견직물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물리·화학적인 열화과정을 거치면 다른 종류의 견직물보다도 훨씬 빨리 부식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 비교적 많은 羅직물의 유물을 접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羅직물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질감으로 인해 비교적 많은 노력을 들여 귀족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료로 널리 제작하였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국내 소장되어 있는 羅직물은 통일신라 유물로 전해지는 것으로 석가탑 사리구에서 발견된 6점, 월정사의 향낭의 소재로 사용된 1점, 수덕사에 소장된 4점,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아미타불 복장직물 40여점 등이 있다.

3. 羅직물의 유형은 크게 무늬가 있는 紋羅와 무늬가 없는 無紋羅로 구분된다. 羅직물은 제작기법상 매우 복잡한 문양은 제작할 수가 없으므로 힐염, 금박, 직금, 자수 등의 2차가공을 실시한 紋羅직물이 많다. 여기에는 闕繡羅직물에 금사를 첨가한 闕

繡錦羅, 羅직물을 제작한 후 위사와 위사 사이에 금사를 넣어 문양을 강조한 중조직형의 織金羅, 羅직물에 금박을 찍어 문양을 나타낸 金箔紋羅, 羅직물에 자수놓은 繡羅 등이 있다. 그리고 野草羅, 昇天羅, ○○紋羅 등과 같이 羅織 바탕에 단순한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 조직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제작한 紋羅직물도 있다. 실제로 繡羅, 織金羅, 金箔紋羅 등의 화려한 紋羅 직물이 국내에도 다수 소장되어 있으며 이런 紋羅 직물은 중국, 일본 등지에도 다수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시기 유행했던 기법임을 짐작할 수 있다.

4. 無紋羅는 교경되는 경사의 가닥수에 따라 2經絞羅, 3經絞羅, 4經絞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견된 고려시대까지의 無紋羅는 모두 4經絞羅직물이었다. 이 無紋羅 직물도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지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5. 흥덕왕 복식금제조에 보이는 복식명칭 및 재료는 문헌의 기록도 드물고 유물도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뚜렷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족한 점을 밝히둔다.

참고문헌 및 미주

- 삼국사기 권 제 33 雜志 권 2
- 삼국사기 권 제 33 주석편(하)
- 민길자, 전통옷감, 대원사, 1998
- 심연옥, 중국역대직물, 한림원, 1998
- 조선기술발전사 편찬위원회, 조선기술발전사 3,4,5,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백산자료원, 1994, 1996
- 홍희유, 조선상업사(고대, 중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백산자료원, 1989
- 장현주,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영란, 중국 고대 織金錦繡와 金代衣裳,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제5호, 1998
- 김영숙, 조선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혹석사 아미타불복장직물), 미술문화, 1997
- 권정희, 라직의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온양민속박물관,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

- 1991
-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한국복식 12호,
 - 허홍식·남권희·김영숙·권순정, 고려의 불복장과 염직 -1302년 조성환경과 직물의 특성-, 계몽사, 1999
 - 周汎 高春明 編著,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
 - 川島織物研究所, 川島織物 研究報告 第3報 -上代綾にみる斜子技法-, 1958
 - 川島織物研究所, 川島織物 研究報告 第4報, -羅技私考-, 1960
 - 川島織物研究所, 川島織物 研究報告 第5報 -上代錦綾特異技法攷-, 1973
 - 布目順郎, 目で見る纖維の考古學 纖維遺物資料集成 染織と生活社, 1992
 - 高漢玉, 中國歷代織染繡圖錄 상무인서관향항분관 상해 과학기술출판사 합작, 1986
 - 吳淑生·田自兼, 中國染織史, 상해인민출판사, 1986
 - 趙豐, 織繡珍品, 藝紗堂 服飾工作所, 1999
 - 布目順郎, 目で見る纖維の考古學, 染織と生活社, 1992
 - 松本包夫, 正倉院裂, 日本の染織①, 京都書院, 1993
 - 松本包夫,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東京:紫紅社, 1984
 - 織と生活社, 1992, pp.113~115, p.122
 - 松本包夫,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東京:紫紅社, 1984, p.14, pp.24~27, p.38, p.92
 - 川島織物研究所, 川島織物 研究報告 第4報, -羅技私考-, 1960, pp.19~20
 - 松本包夫, 正倉院裂, 日本の染織①, 京都書院, 1993, p.48
- 9) 김미자·조효숙(1991), 앞책, p.120
 - 10) 川島織物研究所, 川島織物 研究報告 第4報, -羅技私考-, 1960, p.1
 - 11) 松本包夫, 正倉院裂, 日本の染織①, 京都書院, 1993, p.48
 - 12) 高漢玉(1986), 앞책, p.15
 - 13)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p.80~81
 - 14) 권영숙, 月精寺八角九層石塔發見繡羅香盒囊小考,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2000. 연화화생:극락왕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를 비롯한 부랑수전, 아미타불 등의 불화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연화화생의 모습은 대개 연꽃을 발 아래에 두고 화생을 하는 모습이거나 고구려 벽화에서처럼 연꽃 봉우리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많지만 본 향합낭에 묘사된 모습은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 15) 실크로드 3000년전 -신강(新疆)의 고대 직물문화-, 온양민속박물관 신강위구르자치구문화사업관리국, 2000, p.260
 - 16) 吳淑生·田自兼(1986), 앞책, p.81
 - 17) 유희경·이강철·이순자·허동화, 대한제국시대 문물 전 대한제국시대 문부관복식제도 대한제국시대 문물 전 카타로그 부록,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1991, p.17
 - 天鵝絨:起毛絹織物(周汎 高春明,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1996, p.532)
 - 18)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제13회 출토복식 특별전 -천안쌍용동 출토 풍산홍씨 유물-, 1994년 5월 絨背錦:宋代的 견직물(周汎 高春明(1996.) 앞책, p.532)
 - 19)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p.80~81
 - 20)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p.80~81
 - 21)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p.80~81
 - 22) 김미자·조효숙(1991), 앞책, p.121
 - 23) 김영란, 중국 고대 織金錦繡와 金代衣裳, 국립민속박물관 민속학연구 제5호, 1998, p.101
 - 24) 민길자(1997), 앞책, p.113
 - 25) 민길자, 세계의 직물, 한림원, 1998, pp.98~102
 - 민길자(1997), 앞책, p.112
 - 26) ① 교힐: 일정부분을 잘 잡아서 실로 묶어 염색을 하는데 염색후 묶은 것을 풀면 묶었던 부분은 원색이고 그외의 부분은 염색이 된다.
 - ② 협힐:규격과 문양이 똑같이 조각된 두개의 판사이에 염색할 직물을 넣고 잘 잡아당겨 아래위의 판을
- 1) 김동욱, 신라의 복식 -신라의 복식 금제-, 新羅文化 宣揚會 刊, 1979, pp.28~29
 - 2) 유희경·김문자, (개정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9, p.79~82
 - 3) 정구복, 역주 삼국사기 주석편(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07, p.115, p.117, 118
 - 4) 삼국사기 권 제33 잡지 제 2 색복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106
 - 고구려에서는 紫羅冠, 白羅冠, 靑羅冠, 緋羅冠 등의 관모에 사용되었으며, 백제에는 烏羅冠이 있었으며, 신라는 귀족계급의 남녀 의복의 소재로 널리 사용했다.
 - 5) 연산군일기 권 48 연산군 9년(1503) 1월 19일(정해) 연산군일기 권 60 연산군 10년(1504) 5월 15일(갑진)
 - 6) 민길자, 전통옷감, 대원사, 1998, pp.68~69
 - 7) 김미자·조효숙, 1302년 아미타불복장 직물의 분석, 온양민속박물관, 1991, pp.120~124
 - 8) 三國史記 권 제 33 잡지 제2 色服條 趙豐, 織繡珍品, 藝紗堂·服飾出版, 1999, p.29, p.48, p.209, p.210, p.224, p.338
 - 실크로드 3000년전 -신강(新疆)의 고대 직물문화-, 온양민속박물관 신강위구르자치구문화사업관리국, 2000, p.260
 - 高漢玉, 中國歷代織染繡圖錄, 商務印書館香港分館·上海科學技術出版社 合作, 1986, p.43
 - 吳淑生·田自兼, 中國染織史, 上海人民出版社, 1986, p.81
 - 布目順郎, 目で見る纖維の考古學 纖維遺物資料集成 染

단단히 고정시키고 조각된 화판 사이에 염액을 주입하여 염색한다. 이때 화판이 잘 고정되어 있다 해도 염료가 밖으로 살짝 퍼져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느낌을 내게 한다.

③ 납혈 : 납이나 방염호를 방염제로 사용하여 직물에 도포한 후 잘 마른 뒤 침염하여 방염된 부분에 염색이 되지 않으면서 문양을 나타낸다.

- 27) 심연옥, 중국의 역대직물, 한림원, 1988, p.110
- 28) ① 연금사 : 황금덩어리를 나무 혹은 철방망이로 두들겨 퍼낸 금박을 다시 가는 띠의 형태로 잘라내어 실을 이루는 실의 표면에다 말면서 나선형으로 감는 것으로서 금박의 띠를 실의 표면에 잘 감아야 순금의 광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편금사 : 풀솜종이나 섬세한 가죽의 표면에 얇은 금박을 붙인 다음 실 모양으로 가늘게 잘라 만든 것 (김영란(1988), 앞논문, p.99)
- 29) 김영란(1988), 앞논문, p.114
- 30) 허홍식·남권희·김영숙·권순경, 고려의 불복장과 염

직 -1302년 조성환경과 직물의 특성-, 계몽사, 1999, p.299~300, p.302

- 31)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p.80~81
- 32) 아미타불 복장직물의 밀도 :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1991), 온양민속박물관」의 선행연구 결과임
- 33)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p.80~81
- 34) 周汎 高春明(1996), 앞책, p.531
정구복, 역주 삼국사기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15
- 35)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p.80~81
- 36) 정구복, 역주 삼국사기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18
- 37) 옥영수·김상용, 발굴유물의 보존 및 과학적 고찰, 천마총발굴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pp.239~245
- 38) 유희경·김문자(1999), 앞책, pp.80~81
- 39) 周汎 高春明(1996), 앞책, p.522